

우선 먼저 알려 드려야 할 것은, 저는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연구자로,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발전이 전공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의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피폭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쓰리마일은 노심용융으로 시작하여 노심붕괴, 체르노빌은 노심폭주 후 폭발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노심 내부의 방사선 물질이 외부에 직접 퍼져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물질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안정되어 가고 듯 보이므로, 위의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심용융되지 않을까? 라고 보도 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기 사고는, 쓰리마일 사건에 가깝습니다만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바닷물을 주입하여 노심을 냉각, 거기에 더해 봉산을 주입하여 반응을 막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유지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대로 안정되어 이 이상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방사선 물질을 내부에서 봉쇄했다, 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사고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내부 증기를 방출할 때, 일부 방사선물질이 방출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역시 노심붕괴와는 전혀 다릅니다.

피폭에 대해서는, 현장 주변의 환경 모니터링 수치는 매우 낮으므로(비행기 이동이 더 높을 정도 입니다) 문제 없습니다만, 문제는 방사선 물질이 확산될 경우입니다. 일부 피폭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주변부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방사선 물질은 그 날의 풍향에 의해 떨어질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뉴스를 잘 보고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방사선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었을 경우입니다. 좋은 대책은 화분증대책입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쓰고 집에 들어 갈 때에는 꽃가루를 털어낸다는 감각으로 생활하신다면 체내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확산되는 방사선 물질은 아주 작은 금속 알갱이이므로, 작은 꽃가루같은 물질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별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